

팔복예술공장 정체성 불명확 하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전시작업 중심의 주거지인지, 주민생활 문화예술공간인지 불분명” 지적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전주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팔복예술공장 조성 사업이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부지 매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규 의원(송천1동)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복예술공장 조성 사업에 국비 25억원과 시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이 들어가는데도 부지 매입도 순탄치 않고 건물도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와 프로그램 인건비로만 이미 3억 8000만원이 투입돼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팔복예술공장은 전시작업 중심의 레지던스인지, 주민생활 문화예술공간인지 정체성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경우 직원 4명에 예산도 1억5000만원대인데도 팔복예술공장은 사업 초기에 이미 감독 1명, 계약직 4명, 기간제 1명 등 5명이 근무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공장 시설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부지소유자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직원들 먼저 뽑고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역할도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주문화재단 사업도 전주시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문화정책발굴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전주시의 국가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전주랜드메이드시티 조성 사업에도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전주2016년 본예산에 시비 9억을 편성했으나 1년 동안 3건의 용역만 수행하느라 사업이 차질되고 늦어지고 있다”며 “11월 현재 실시계획 계약단계로 예산편성 당시 논란이 많았으나 전주시책으로 예산이 어렵게 편성됐지만 사업이 늦어지고 1년 동안 용역만 수행한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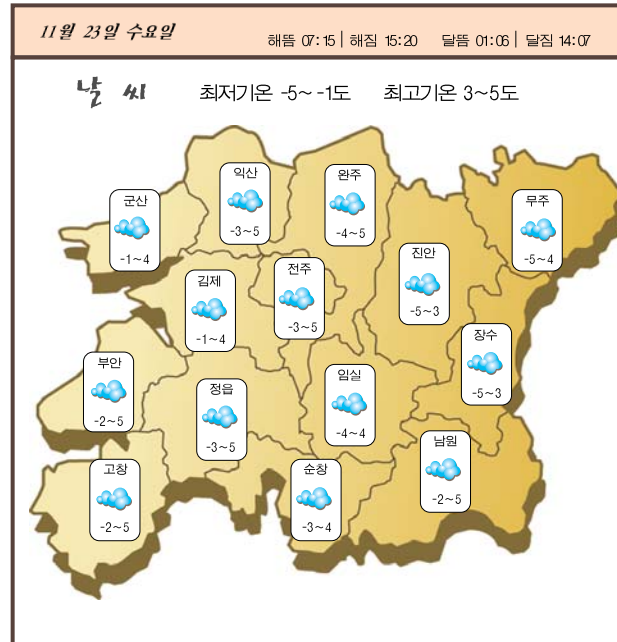
또한 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앞서 기본용역

이나 사업보고서 용역 등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1년이 넘게 용역만 수행,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주시는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을 전주랜드메이드 거점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주시 온브랜드 사업을 계승한 랜드메이드시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구 수제거리는 가족제품으로 구두, 가방 등을 만드는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5월 빨간구두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도 양장점거리 한지거리, 공예공방촌 등 문화콘텐츠 인력과 결합한 랜드메이드시티 거점공간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재기자



원광대-전북개발공사 업무 협약 체결

지역사회 발전·도모 협력체계 구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도중 총장과 고재찬 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한 학술 및 인적교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공동 관심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비롯해 원광대 Eco-Green 특성화사업단, 토목환경공학과 학생들의 교육학습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에도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김도중 총장은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기대된다”며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발전하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 유치원 기관평가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

“교사 업무만 늘리며 교육과정 운영 왜곡할 것”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부의 유치원 기관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적용될 교육부의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 계획이 기관의 자율성 존중과 단위 유치원의 평가업무 부담을 줄여보려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초와 전면 배치된다.

전북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시도 교육청 자체지표를 제외하고도 공통 지표만 7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면서 “결국 기존 평가요소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결국 유치원 교사 업무만 늘리며 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건이 다르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지표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것은 교육감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조치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퇴행하는 평가안의 즉각 철회와 아울러 전북교육감은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구성원간의 협력적 교육 및 자율성 인정을 존중하는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병원 난치성 천식 신개념 치료 개발 가시화

이용철 교수팀, 보건복지부 ‘임상현장 발굴 국가핵심 중개 연구’ 3단계 진입과제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연구 중인 난치성 천식의 신개념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 따르면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이용철 교수팀의 ‘최첨단 흡입 제형 개발을 통한 난치성 천식 치료 기술개발’ 연구과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3단계 진입 과제로 선정됐다.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미충족 되고 있는 의료 수요를 반영한 질환극복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성과 창출 및 미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5가지 질환군(암질환, 뇌/신경 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알레르기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의 지원을 받아 해당 카테고리별 최첨단 과제별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용철 교수팀의 난치성 천식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부분은 2012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국책연구 과제 2012년 1단계 선정에 이어 2014년 2단계 진입과

제로 선정된 이후 꾸준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었으며 올해 최종 단계인 3 단계 진입 과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로 선정됐다.

이는 각 단계 진입마다 정부지원금이 많아지는 연구과제로 3단계 선정에 따라 해마다 20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5억원의 기업부담금 총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대병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한 연구팀은 이용철 교수를 주관 연구 책임자로 전북대학교 약리학 교실의 채한정 교수팀, 안전성 평가 연구소 흡입 독성 센터의 이규홍 박사팀, 국내 대표 제약회사 연구소인 유한인젠 중앙 연구소의 정원희 박사의 신약 개발의 이상적 연구팀 구성을 이루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임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후보물질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의 연구 개발 내용이 유한인젠 측과 사전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한 상태로 연구 성과가 산업화가 되어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연구 책임자인



이용철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폐 손상 치료 개발 특성화 센터장으로서 난치성 폐 질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이외 다양한 국책 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선정 T2B (Technology to Bed) 사업의 호흡기 질환 제품 유효성 평가 센터에 정음 안전성 평가 연구소 흡입 독성 센터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선정되어 국내 유일의 호흡기 제품

유효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슈가 된 바 있다.

전북대 의화전문대학원 내과 교수 및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장으로 역할 중인 이 교수는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연구이사,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 심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정회원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 의학 용어 위원회 이사 학회 학술지의 부 편집장, 및 한국 연구 재단 전문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영재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